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며 백년대계다

기반(基盤)이란 건축할 때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말하며 기반이 튼튼해야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다. 따라서 국민이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국민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 중에서 국민 교육에 관심을 둔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문맹자(비문해자)가 쉽게 배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국민교육에 힘썼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창기 건국의

틀은 정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민주주의 정치를 선택했으며, 경제는 누구나 각자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택했고, 국민교육은 의무 교육제도를 선택해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결정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기반을 교육에 두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지혜로와야 나라가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의 나가야 할 지표로써 국민 교육현장을 제정해 모든 국민교육이 국민교육현장 정신에 따라 교육하도록 했다. 잘살기 위한 경제교육으로 전남 고흥에서 두레 운동으로 발달한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에 바탕을 둔 새마을운동을 정립하여 국민경제 교육을 실천했으며, 한국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안한 상태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교육과 경제 발전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진하였다. 모든 국민이 닦아야 할 인생 목표의 대상으로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을 선택해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웠으며, 각급 학교나 공원에도 국민이 존경하고 닦아야 할 위인들의 동상을 세웠다. 그리고 교육의 나가야 할 지표로써 국민 교육현장을 제정해 모든 국민교육이 국민교육현장 정신에 따라 교육하도록 했다. 잘살기 위한 경제교육으로 전남 고흥에서 두레 운동으로 발달한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에 바탕을 둔 새마을운동을 정립하여 국민경제 교육을 실천했으며, 한국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기를 공모하여 새마을운동 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기로 만들어 국기 계양대에 계양했다. 독일이 전쟁으로 패망하여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철학자 괴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향의 연설'은 독일 국민을 감동케 했으며 그에 따라 독일 정부는 국민 교육에 힘쓰고 경제를 부흥시켰다. 그러므로 나라가 융성하고 경제가 부흥하려면 교육이 국가의 기반으로써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민족이며 그에 따른 국민 교육의 수준이 높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7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국민 교육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다. 국

민 교육 수준과 경제 발전은 같은 맥락에 있다. 학교 교육이 경제를 외면한 교육이 되어서는 국가의 장래가 어둡게 된다. '가난은 부자의 밑천'이라 하는데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 정신이며 근검절약 저축의 정신은 잘 살기 운동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근검저축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교육하고 있고, 저축 없는 과소비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의 실천 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일깨워 주려면 근검저축 교육을 해야 한다. 국민 개인 빛도 많고 국가빛도 많은 우리나라가 잘살려면 밖에서도 많이 벌어들여야 하지만, 안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근검저축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세 개의 깃발이 국기 계양대에서 펄럭이고 있는데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와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운동 기와 학교를 상징하는

교기가 계양되어 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애국하는 교육과 경제발전을 위한 잘살기 교육과 애교 정신을 기르는 교육 목표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자율과 자치를 앞장 세우는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이 국기 계양대에서 경제를 상징하는 기를 타의에 의해 2017년에 국기 계양대에서 내려 3년이 되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데 올해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광주시청이 경제를 외면한 시정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 교육청이 경제를 외면한 학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음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 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부서에 '국가 교육 위원회'를 두어 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민주정치 국가가 융성하려면 교육이 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도 잘되려면 지방 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 민선으로 당선된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은 광주시민과 학생의 경제교육에 관심을 품고 창의적 시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사기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는 중간점검하는 습관

'전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오면 '아직도 그 걸 당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대꾸도 적지않게 들을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자신이 못 나서가 아니다. 약질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증거가 드러나도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려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림자처럼 진실인 것처럼 혹은 착하게 보이는 말로 상대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들에게 나이, 직업, 학력, 인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자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힘든 일인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며 불행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역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문제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전자기기 발전과 함께 다양하게 격변하며 우리의 삶 속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경찰·검찰·금융기관·자녀를 사칭하며 전화하던 단계에서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으로

접근해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악성 앱을 설치·링크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 데이터 삭제, 금융정보를 쉽게 탈취하거나 대놓고 특정 장소에서 대면하여 거액을 편취 해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가장 최선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점검·확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줄이도록 하는 자세이다.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금전적 손

해를 만회하고 싶은 불안한 심리로 인해 다시 믿고 속아 버리는 자기최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정보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명확한 진실 앞에서는 거짓이 통할 리 없다. 당부컨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 자신을 지키고 있는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희정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경위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